

“SRF 소각발전시설 반드시 막을것”

김승수 시장, 공식 사과와 함께 “끝까지 대응” 강조... 지구단위계획 적용 등 환경오염시설 차단키로

김승수 전주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시설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끝까지 대응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사실상 발전시설을 지어 놓고 자원순환시설이라고 역지를 부리는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 업체와의 소송에서 강력히 대응할 뜻을 이와 같이 밝히며,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을 가동할 때 필수 절차인 △폐기물처리업 허가 △고형연료 사용신고 △대기배출 방지시설 가동신고 등의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강력한 행정력으로 강력히 막아내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허가과정 의혹을 밝히겠다”며 “우리는 전북도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필요하다면 저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을 수사하여 명명백백히 의혹을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 밖에도 “폐기물 고형연료 관련 사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늘어났다. 산자부와 환경부로부터 허가권을 취득한 민간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기자회견이 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깊어질 것”이라고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도심 폐기물처리 시설 휴·폐업 및 이전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건의했고 특히, 정치권과 국회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며 기자와 참석자들에게 전주시의 해결의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문제가 된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은 지난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시에는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업체는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고형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전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 공사가 중단됐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송효철 기자

가을로 물든 전주천, 자전거로 썩썩

시, 10일 노송광장-전주천 자전거길에서 시민 자전거 행진

자전거가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오염을 해결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전주시민 자전거 행사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10일 생태교통수단으로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사는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을 출발해 공구거리와 전주천 자전거길, 전주천교(만경강 합류부), 전주천자전거놀이터로 돌아오는 약 20km 코스를 달리게 된다.

아울러, 덕진지역자활센터의 두 바퀴 행복사업단에서 자전거 점검 및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며, 자전거 안전이용 홍보부스도 마련된다.

자전거 행진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ju.go.kr) 또는 전주시민자전거행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맺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주시 자전거정책과(281-2562)로 전화신청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행진 시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가족, 친구와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함께 나와 자전거를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심 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선미촌의 과거·현재·미래

전주시, 아카이빙 위해 기록화용역 최종보고회

변천과정·문제해결 위한 민관거버넌스 활동 등 정리

전주시가 서노송동 선미촌의 성매매 집결지였던 이곳의 과거와 문화예술과 인권마을로 변화하는 내일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시는 5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선미촌 문화재생산업과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관련부서 공무원과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 위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미촌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의 용역을 맡은 허나운 작은여행 대표가 프로젝트의 개요와 그간 조사해온 한국 성매매집결지 100년의 역사, 전주 ‘선미촌’의 형성사 및 변천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시는 용역을 통해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성매매집결지의 생성과정을 포함한 전주에의 성매매 기록들을 찾아 정리해왔다. 또, 노송동 지역에 성매매집결지가 만들어진 경로를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과거 항공사진과 구지도, 수치지도 등을 제공받아 정리했으며, 선미촌을 중심

으로 지도를 편집해 도심에서 선미촌의 공간적 형태의 변화상을 정리했다.

앞서, 시는 성매매집결지를 물리적으로 일시에 없애는 방식이 아닌 전국최초로 점진적 기능전환이란 방식으로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기반과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등 지역 주민 등 시민과 함께하는 선미촌 문화재생산업을 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성과물이 제출되면 아카이빙 전시공간으로 구성하여 전시 및 교육자료 정리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과정에서 비록 아픈 과거 일지라도 선미촌을 기록하고 남김으로써 후세의 교훈으로 삼고, 여성에 대한 성적착취와 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되어 온 선미촌을 인권의 가치를 깨우는 역사적 현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시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효철 기자

고창 책마을 해리의 운영 방법 배워요

전주시립도서관 자원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전주시립도서관은 5일 덕진구 권역의 시립도서관에서 활동중인 도서관 사랑모임 회원과 자원활동가, 도서관 직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고창군 책마을 해리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주시가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주민과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원활동가에게 소통과 정보 공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방문한 책마을 해리는 폐교였던 장소를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책놀이터로 변모시켜 현재, 책학교, 책영화제 등 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곳에서 ‘함께 읽고 함께 쓰기’를 주제로 이대건 책마을 해리 촌장의 특강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설을 견학하며 책마을 해리의 운영 방법 등을 배웠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상호협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겨울철 위기상황 가구 발굴

덕진구,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는 다가오는 겨울 대비 위기상황 가구를 발굴하고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덕진구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 자생단체를 통한 홍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학교 등에 방문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긴급지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발굴 조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긴급복지란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만4000원, 4인 기준 338만9000

원) 이하,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된다.

또한, 10월부터 오는 2019년 3월까지의 가구당 월 9만16천원의 동절기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단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긴급지원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에 따라 위기 해소의 핵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단 한 가구의 위기경도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